

간협, 간호정책 추진 국회의원 간담회



김명연 국회의원과 지역간담회 가져

대한간호협회는 김명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역간담회를 경기도 안산시에서 6월 28일 가졌다.

이날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김인자 경기도간호사회장, 김정환 경기도 안산시간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옥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 정책제안서'를 김명연 의원에게 전달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법·제도 발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성공적 정착 △간호사 이직 방지 및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분야 활성화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간호사 인력 확보 등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면허를 취득한 남자간호사가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요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6월 12일 발의한 바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윤소하 국회의원에게 정책제안서 전달

대한간호협회는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7월 4일 만나 간호협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간호현안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대한간호협회 정책제안서'를 윤소하 의원에게 전달했다. 지역간 간호사 근무환경 격차 해소, 직장보육시설 확충,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담당간호사의 정규직화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협회 정책제안서에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법·제도 발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성공적 정착 △간호사 이직 방지 및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분야 활성화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간호사 인력 확보 등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협회 실무자협의회 열려

회원 민원 응대 등 교육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2017 실무자협의회 회의 및 전국 직원 직무수련회를 7월 6~8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개최했다. 간호협회 중앙회 직원,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의 간호사 회원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실무자 여러분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교육과 더불어 서로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자협의회에서는 회원 민원 응대, 문서 작성 실무, 재무



제표 해석 및 통합재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태환 나눔시큐어 수석 컨설턴트가, 성희룡 예방교육을 이서영 노무법인 유엔 노무사가 실시했다.

최태성 별첨한국사연구소장이 '역사 속 인물로 보는 리더십' 주제로 특강을 했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치매 연구용 인체자원 분양 개시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 치매 관련 인체자원이 연구자에게 분양됨에 따라 체액자원 분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정기석)와 국립보건연구원(원장·박도준)은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 치매 연구용 인체자원을 공개하고, 연구자에게 본격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원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환자 526명에게서 확보한 혈액, 유전정보, DNA 등 인체자원을 보관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총 515개의 연구과제에 인체자원을 분양했다. 연구자들은 분양받은 자원을 활용해 317편의 학술논문과 22건의 특허 등의 연구성과를 창출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우수 중소병원 늘어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는 항생제 사용을 잘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1등급 기관이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은 '7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7차 평가는 2015년 9~11월 3개월간 입원진료 분야에 대해 15종류 수술을 시행한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768개 기관, 9만4551건을 평가했다.

15종류 수술은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녹내장수술, 전립선절제술, 갑상선수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이다. 평가대상 768개 기관 중 종합결과 산출기준에 해당하는 759개 기관에 대해 종합결과와 등급을 산출했다.

전체 종합결과는 78.3%로 6차 평가 대비 5.0%p 상승했다. 상급 종합병원 98.4%, 종합병원 82.4%, 병원 74.5%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은 6차 평가 대비 5.8%p, 1차 평가 대비 34.5%p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장기등급별로는 1등급 242개(31.9%), 2등급 293개(38.6%), 3등급 179개(23.6%), 4등급 37개(4.8%), 5등급 8개(1.1%)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1등급 기관이 고르게 분포했다. 1등급 비율은 2차

평가 대비 2.2배 증가했고, 특히 종합병원은 중소병원이 7.7배로 크게 늘었다.

세부 평가지표 결과를 보면, 먼저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높을수록 좋은 지표로 7차 평가결과 전체 평균 88.2%로 나타났으며, 6차 평가 대비 3.4%p 향상됐다.

'이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투여율'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계열 투여율' '예방적 항생제 병용 투여율'은 예방적 항생제로 투여하거나 병용투여는 권고하지 않는 사항으로 낮을수록 좋은 지표다. 전체 평균 각각 3.3%, 3.0%, 14.8%로 6차 평가 대비 3개 지표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일수'는 예방적 항생제의 첫 투여시기가 적절하면 수술 후 24시간(심장 48시간)까지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낮을수록 좋은 지표이다. 처방률 16.7%, 투여일수 4.1일로 6차 평가 대비 3.4%p, 0.8일이 감소해 2개 지표 모두 향상됐다.

김선동 심평원 평가2실장은 "평가결과가 향상된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평가대상 수술 확대 등과 함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이 노력한 결과"라며 "특히 중소병원의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사 꿈꾸는 학생 위한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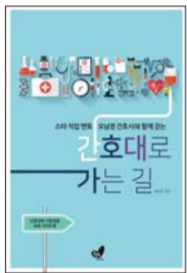
'간호대로 가는 길' ... 오남경 간호사 저

간호대학 지망생을 위한 가이드북 '간호대로 가는 길'이 출간됐다. 현직 간호사가 인생의 선배이자 멘토로서 간호사를 꿈꾸는 미래 나이가팅게일들을 위해 들려주는 지침서이다.

오남경 서울 목동자생한방병원 주임간호사는 '직업인 멘토 강사'로 활동하며 만난 학생들의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엮어 '간호대로 가는 길'을 발간했다.

오남경 간호사는 서울과 경기권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서 100회가 넘게 강연한 직업인 멘토 강사이다. 간호사가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간호사 직업에 대한 정보, 간호사가 되는 길 등을 알려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직업을 갖기에 앞서 '강력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업인 멘토 강사로서 결맞은 지식과 자격, 역량을 갖추고자 간호학 석사학위는 물론 EBS커리어



진로진학상담사 2급 자격증도 취득했다. 책 1부는 학생들의 질문을 모은 Q&A 형식으로 구성됐다. '선생님

은 왜 간호사가 되셨나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성격은 무엇인가요?' '간호사는 병원에서만 일을 하나요?' '남자도 간호사가 될 수 있나요?' '힘든 환자를 만났을 때, 선생님만의 대처 노하우 방법이 있으신가요?'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록했다.

2부 '어느 간호사의 25시'는 간호사의 일상을 시적 언어로 담았다. 학생들이 간호사의 삶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글이며, 간호사들도 공감할 수 있는 힐링 에세이다. (흔들의자 / 200쪽 / 1만5000원)

주혜진 기자 hjoo@

비만예방 슬로건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비만 예방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만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공모전 입상작은 건보공단 비만 예방사업 홍보, 캠페인 등에 활용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하며, 한글 또는 영문(훈음 가능)의 20자 이내 규격의 개인 창작물이어야 한다.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접수기간은 8월 18일까지며, 이메일(leece3@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nhis.or.kr) 및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 참조. 문의 033)736-3528.

최수정 기자 sjchoi@

Nurselife make yourself comfortable. 2017년 연중 지급 혜택. 6월 지급 혜택. 7월 지급 예정 혜택.

홍세빈 중앙대 학생, 응급처치로 시민 생명 구해

지하철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중앙대 학생의 소식이 알려졌다. 주인공은 홍세빈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3학년 학생이다. 홍세빈 학생은 지난 5월 19일 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 같은 칸에 있던 60대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목격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여성 의식이 돌아왔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건강하게 퇴원했다.



마음을 전달하고자 중앙대 총장실로 알리와 공개했다. 중앙대 김창수 총장은 홍세빈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홍세빈 학생은 "수업 중에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훈련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간호대학생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환자 가족들이 감사하다고 하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옥수 인쇄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다0630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간호사신문 (02)2260-2571

간호인력 해결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와 함께하세요!! 꼭 챙기세요~ 01 RNjob 홈페이지의 구인기관 등록 시 취업 우선 연계 02 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실무훈련 취업 시 간호사 1인당 훈련비 100만원(4주 기준) 지급 03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간호관리자 교육 직원소통 전략 및 갈등관리, 정부지원 제도 소개 0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예정)병원 간호인력 교육 변화된 의료환경 이해,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05 취업간호사 실습지도 표준화교육 최신 임상술기 및 표준화된 간호절차 06 권역센터 서울·강원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북 대전 충청·충남 경기 ※ 대표전화 1522-1755로 연락주시면 중앙 및 권역센터 어디로든 연결이 가능합니다.